## 물과 질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한 암모니아 합성

<u>정하나</u><sup>1,2</sup>, 윤형철<sup>1</sup>, 주종훈<sup>1</sup>, 유지행<sup>1</sup>, 송기창<sup>2</sup>, 김종남<sup>1,\*</sup> <sup>1</sup>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sup>2</sup>건양대학원

수소는 무탄소 연료이며 제조 원료가 다양하고 에너지담체로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제조 방법에 따라 다량의 CO2 배출, 높은 생산 단가, 안정성, 저장, 이송 등의 단점이 있다. 수소와 비교하여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8.5기압: 액체) 및 이송이 용이 하고, 에너지 밀도(액화 암모니아: 11.5 MJ/liter, 액화 수소: 8.49 MJ/liter)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암모니아는 무탄소 연료이며 높은 수소 저장 매체로 자동차 연료, 연료전지, 가스터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기존 암모니아 합성법인 Haber-Bosch 공정은 고온 고압 공정 (150-250 bar, 300-550oC)으로 높은 에너지 소모, 천연가스 사용, 다량의 CO2 배출 등의 단점이 있다. 기존 암모니아 합성공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압에서 물과 질소를 사용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solid state ammonia synthesis)를 합성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